

New Leader 13.

내 어깨위에 얹혀진 '짐'의 무게와 해결

1. 시대

(1) 세속사

세상 시간의 흐름이다. 흐름은 역사가 된다.

(2) 구속사

구속사 (Salvation history, German: Heilsgeschichte)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가 유효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구속적인 사역을 이해하려는 시도 (위키백과)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는 삶이고, 현장이다. 역사는 흐른다. 그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구속사'이다. 구속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지금 내가 속한 시대는?

시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다.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계절은 알려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한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

[마태복음 24:3-14]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과 환난의 구분 (8-9절) - 재난과 환난은 다르다. 환난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의 시대를 말한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말한다. 많은 어려움들이 증가되는 때를 말한다. 성경적 근거대로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계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주목할 구절은 12절이다.

3. 사랑이 식어지다.

[마태복음 24:12] ~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왜 사랑이 식어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기독교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3:1-3]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생존'의 문제이다.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아있다. 즉,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랑은 가치이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다.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 돌본다. 그 돌봄이 사랑이 되고, 가족이 된다. 왜 사랑이 식어졌을까? 그 이유는 어려움으로 인한 '짐' 때문이다. 어려움은 짐을 말한다. 짐은 누군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이다. 짐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짐의 무게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

* **청년의 고민** - 어려움은 '짐'이다. 아이가 걱정이 없는 이유는 부모가 짐을 저주기 때문이다. 청년이 되면서 고민이 많은 이유는, 어깨 위에 있는 짐의 무게가 현타로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 짐을 해결하려고 한다. 바로 그때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들 어깨 위에 있는 짐의 무게가 역대급의 시대이다. 그 짐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부터 동분서주한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 사람에게 미래의 계획이란 어려운 문제이다. 짐의 무게가 사랑을 식게 한다. 식어질 수밖에 없다.

4. 짐을 어떻게? 복음의 본질?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짐의 문제를 정확히 다룬다. 회피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짐'의 문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짐'의 문제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로 인한 수고의 인생들을 보셨다. 안식이 없다. 피곤하여 지친 인생들 위에 있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인 예수는 실재이다. 오늘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있어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 증가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재발견 해야 한다.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는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짐'이 있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은, 짐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5. 어린양 예수

(1) 세례요한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다. 어린 양의 정의는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세례요한이 어린양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그분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짐이 아니다. 세상의 짐이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믿음의 거인 세례요한도 압도되었다. 그 사랑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2) 타노스와 어린 양

어벤저스에 역대급 빌런 '타노스'가 등장한다. 그런데 타노스는 다른 빌런들과 결이 다르다. 타노스의 고민은 '우주의 짐'이다. 그는 지도자였다. 지도자인 그에게 행복은 '균형'이다. 균형이 있을 때만이 행복은 존재한다는 철학이 있었다. 오늘 우주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생명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지도자로서의 고민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딸도 희생시킨다.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다른 빌런들과 다른 타노스의 실체이다. 본질을 고민하는 생명이다. 그의 선택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랜덤으로 우주 생명의 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타노스의 철학-랜덤으로 정해지게 한다. 능력있고 우등한 존재가 살게하지 않았다). 절대 장갑을 끼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타노스의 균형은 그에게 있어 정의이다. 이 사람을 제거해 나머지 한 사람을 살게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린다)

(3) 어린 양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 또한 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분도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다. 사랑의 완성은 정의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자가 없는 것이 정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를 살리셨다. 그분이 짐을 지심으로 사람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4) 요한계시록 5장 - 합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12-14]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 **합당하신 어린 양** -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양 예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왜 그런가? 어린 양의 정의는 '죽임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짐'의 문제 때문이다. 어린 양 예수가 복음의 본질이며, 사랑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영광은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며, 교회의 영광이다.

6.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사이에

[마태복음 25:35-36, 40]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사이에 있다. 고통이 증가된다. 절대적 빈곤, 아픔, 깨어짐, 상함, 분노, 공허함, 두려움이 짐이 되어 증가된다. 누군가 이 실재적 짐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여준다. 마지막 성도들이 받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합당한 영광을 받고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헐벗고, 주리고,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의 짐을 진 사람들이다. 성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취할 영광의 무게이다. 내 옆의 친구의 짐, 가족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이며 성도의 모습이다.